

신종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요구 빗발

질병본부·자치단체 침묵 일관 혼란 부추기는 가짜뉴스 기승 지역민들 투명한 정보제공 촉구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확진자들이 거쳐간 동선을 알 수 있나요?”, “우체국도 폐쇄하고 마트도 문을 닫았는데 왜 옆에 사는 우리한테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거쳐간 동선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가짜 뉴스만 접하고 추경하는 지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6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2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A(46·나주시 산포면)씨는 직장인 광주와 어머니 집이자 생활거주지인 나주를 오가는 등 활동반경이 매우 넓고 함께 생활하던 자녀들도 최근 해외와 타지로 나가면서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씨의 경우 직장인 광주우편집중국과 생활거주지인 나주, 지역의 마트와 농산물매장, 나주 혁신도시 인근 식당 등을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적인 동선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우편집중국의 경우 A씨가 인력관리 등 업무를 맡으며 자가격리 전 동료 200~300명과 접촉했다고 알려지면서 지난 5일 폐쇄됐음에도, 지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지역 농협도 22번 확진자가 부업으로 재배한 딸기 농산물을 납품한 하나마트점포 2곳을 토요일인 8일까지 임시 휴업하기로 했지만 지역민들은 왜 문을 닫았는지

영문을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6일 오후 들어 방역복을 착용한 보건 관계자가 소독 작업을 하자 쇼핑카트에 물건을 담은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기도 했다. 또 확진자가 살고 있는 마을 주민 등은 확진자가 발생한 소식과 ‘카더라’ 식 가짜 뉴스까지 퍼지면서 동요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그럼에도 나주시는 해당 환자가 머무른 마을 경로당을 폐쇄하고 터미널, 마트, 대중교통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확대하면서도 정보 제공에는 인색하기만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확진자로 판정받은 16번 환자의 동선도 전혀 공개되지 않으면서 추측성 정보만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16번 환자의 이동경로도 지난달 19일 태국에서 귀국한 이후 지난 25일 설 명절 나주 친정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 동선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환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마트·사우나·시네마 등을 방문했다는 가짜 메시지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기 동네 우편집중국이 폐쇄되고 집 앞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민들은 흑시모를 감염 우려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형국이다. 광주시는 부라부라 16번 환자의 가짜 근무처와 가족 외 함께 갔다는 여행 동료, 주소 등이 전부 가짜 메시지라는 해명 자료를 내야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감염병 확산과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오전 광주시 북구 현대병원 출입구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조치를 위해 내방객을 대상으로 방역용 작성 및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7 달뜨기 15:46
해질 18:06 달지기 05:40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았다.

광주	구름많음	-3/7	보성	구름많음	-6/7
목포	구름많음	-3/3	순천	구름많음	-3/9
여수	구름많음	1/8	영광	구름많음	-6/4
나주	구름많음	-7/7	진도	구름많음	-3/5
완도	구름많음	-1/7	전주	구름많음	-6/6
구례	구름많음	-6/9	군산	구름많음	-6/4
강진	구름많음	-4/7	남원	구름많음	-8/7
해남	구름많음	-5/6	축산도	구름많음	1/6
장성	구름많음	-6/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북서~북	0.5	북서~북	0.5
면바다(북)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남)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서부	북서~북	0.5	북서~북	0.5
면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 생활지수

- 매우 높음: 감기
- 매우 높음: 뇌졸중
- 보통: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38	12:58
여수	간조	만조
	01:24	08:07
	14:15	20:09

◇ 주간 날씨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	☀	☀	☁	☁	☁	☁
1/8	-1/9	4/13	2/14	7/14	7/13	6/14

“우리 아이 어찌나”...유치원 집단휴원에 맞벌이 부모들 발동동

광주 긴급돌봄 13%만 이용 코로나 장기화...개원해도 걱정

“불안해서 안되겠어요. 첫째 아이도 학원에 보내지 않을 생각이예요.”

6일 광주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7일까지 유치원에 대한 집단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육아를 걱정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서 사는 한 학부모는 “2월 한 달 동안은 학원도 안 보낼 생각”이라며 “3월에 학교를 가더라도 점점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내에서의 방역 등이 철저히 이뤄졌을지도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들의 경우 면역

력이 약하고 치료제도 없다고 하니 더 걱정이 많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학교나 학원에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두 자녀 이상을 두고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의 상황이 막했다.

7·9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큰 아이는 학원,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끼리만 내버려 둘 수 없어 할머니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등 자녀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전후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긴급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중이지만,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태다.

광주지역 전체 유치원 유아 2만 3015명(추산) 가운데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유아는 3060명(1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9명은 유치원이 아닌 자택이나 친인척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자녀 돌봄 도우미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휴원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정돌봄이 쉽지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전체 유치원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휴원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개강 2주 연기

외국인 유학생 2주 격리

동신대학교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2일로 예정된 개강을 2주 연기된 16일로 연기했다. 개강 연기에 따라 바뀌는 학사 일정은 추후 재학생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동신대는 ‘위기관리 총괄본부’를 구성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도 확정했다. 기숙사에 거주할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246명은 기숙사(1인 1실)에서 2주 동안 격리 수용할 방침이다. 외출이 모두 통제되며 식사도 학교에서 개별 지원한다.

학교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200여 명은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하고,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이 기간 이들은 학교 출입을 전면 통제 받는다. 이에 앞서 5일 조선대 개강을 2주 뒤로 미룬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다수 대학들도 개학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최희종 기자 chae@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

5·18 40주년 슬로건 당선작... 엠블럼은 당선작 없어

‘제 40주년 5·18민주화쟁기념행사위원회’는 6일 40주년 5·18기념행사 공식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될 슬로건 후보를 공개하고 5·18의 평화로운 대동 세상을 꽃피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오월을 품고 평화로! 평화를 안고 통일로!’ ‘들어라! 오월의 합성, 외쳐라! 평화의 노래’ ‘피져라 오월의 진실, 펼쳐라 평화의 결실’ ‘기억하라 오월의 진실! 마추하라 모두의 평화’ ‘품어라 오월정신을, 펼쳐라 대동세상’ 등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슬로건 당선작인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은 5·18민주화쟁기념 40주년을 맞이했으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5월 정신을

계승해 밝혀낼 것과 1980년 5월 광주 10일간의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해방 광주처럼 남북은 물론 한반도에 평화로운 대동 세상을 꽃피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오월을 품고 평화로! 평화를 안고 통일로!’ ‘들어라! 오월의 합성, 외쳐라! 평화의 노래’ ‘피져라 오월의 진실, 펼쳐라 평화의 결실’ ‘기억하라 오월의 진실! 마추하라 모두의 평화’ ‘품어라 오월정신을, 펼쳐라 대동세상’ 등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광주 동구 노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광주시 동구가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고령화와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공을 쏟고 있다.

동구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2배 부과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친 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